

Paper Session 2	발표일시(한국시간): 2021.12.27(월) 16:00~17:30
Women Navigating Buddhist Identity and Difficult Embodiment	

논문 1

비구니 승단에서의 생리(월경) 위생 관리 -인도 시킴(Sikkim) 사례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n Nunneries—Stories from Sikkim, India”

소남 쉐덴(Sonam Choden) / 번역 정옥 스님

요약문:

생리는 생물적 과정이고 생식 건강의 기본적 지표이지만, 인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생리에 대해 오명을 씌워 창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 시킴지역 티베트 비구니승단의 월경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필자는 본 이슈와 생식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과 지역사회의 믿음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생리 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특히 비구니스님들이 생식 건강 정보와 서비스(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마음을 여는 데에 장벽이 된다. 이 연구의 초점은 밀교 수행 전통의 시킴지역 비구니 스님들에게 있다. 이 연구는 생리위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들 서비스 이용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여성의 생식건강, 위생,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는 워크숍을 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이번 연구가 최초의 시도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비구니 스님들의 생리위생 관리 경험을 파악하고, 자신의 체험담, 구술사, 증언을 통해 실제 현실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발표자 이력

소남 쉐덴 셰르파 스님: 인도 뭌바이의 타타사회과학원(Tata Institute of Social Sciences)에서 사회복지, 여성 중심 수행에 대한 정식 훈련을 받았다. 스님은 주반 사사카와 평화재단(Zubaan Sasakawa Peace Foundation)의 젊은 북동부 인도 연구자상의 수혜자이다. 인도 시킴지역 성 관련 승단 공간에 대해 협의하며, 티베트 불교 비구니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페미니즘 연구, 정신 건강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논문 2

불교로 개종한 인도 푸네 마하라슈트라주 불자여성들, 이들의 경험과 투쟁 그리고 활동
슈방기 사트카르((Shubhangi Satkar)/ 번역 김은희

요약문: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Babasaheb Ambedkar, 1891~1956)는 힌두법안(Hindu Bill Code)을 입법할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 불교수행 전반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다. 그는 힌두법안 입법을 통하여 가부장제에 도전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동시에, 불도(佛道)를 통한 해탈을 지목하였다. 현재 인도 마하라슈트라에서 여성들은 암베드카르의 불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불교 여성단체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높인다.

3 세대 암베드카리트(Ambedkarite: 암베드카르를 따르는 사람들)는 2001 년에 “보웃드 상가르슈 사미티(Bouddh Sangharsh Samiti: 불교투쟁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직은 인도를 불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지역 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의 많은 여성들은 다종교 가족 출신이며, 계급, 종교, 민족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전통적 가족의 틀과 그것의 견고한 테두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 중이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면서 불교로 개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불자임을 드러낸다. 불교에 귀의한 이들 젊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파하여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보웃드 상가르슈 사미티에서 일하는 세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교로의 개종과 용기를 얻었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불교로 개종한 여성들의 삶과 각자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필자는 보웃드 상가르슈 사미티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이들이 가족이라는 전통을 부수고 나왔을 때 직면한 많은 도전에 맞서 각자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뛰어넘어 어떻게 불교적 삶을 찾아가고 불자 여성들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발표자 약력:

슈방기 사트카르(Shubhangi Satkar)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푸네 출신이다. 그녀는 푸네 대학에서 여성학 석사 및 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4 년째 푸네대학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불교공동체에서 수년간 일했으며 현재 강단에 서고 있다. 그녀는 불교 여성 단체와 함께 일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거수행을 했다.

논문 3

태국 북부 치앙마이 여성 성노동자의 신앙심

암뉴에폰드 킷프롬마(Amnuaypond Kidpromma)/ 번역 정형은

요약문:

본 논문에서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불교를 믿는 여성 성노동자들의 종교생활과 불교에 대한 신앙심을 고찰하고자 한다. 태국은 섹스관광으로 가장 인기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불교를 통한 도덕적 삶을 중요시하는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 동안 가난과 사회복지 제도의 부재로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돕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 여성들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성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선택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하지만 최근 성노동자로 일하는 당사자나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 이제 태국에서 성노동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은 (돈을 벌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일로 여기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이다. 불교 규범상 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올바른 불자”가 아니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로부터 낙인찍히고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죄책감을 느끼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성노동자도 있다. 이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지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들 중에는 고객을 많이 끌고, 고객을 상대하는 동안 악한 기운과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만든 불구(佛具)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은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여성 성노동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행 활동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불교를 통해 종교활동을 함으로써 심리적 의지와 정신적 안정을 구하여 미래에 대한 더 나은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논하고자 한다.

발표자 이력:

암뉴에폰드 킷프롬마(Amnuaypond Kidpromma) 박사는 현재 태국 치앙마이대학 종교철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킷프롬마 박사는 영국 랑카스터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종교인류학(힌두교와 불교 방면)과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의 젠더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논문 4

사분울에 의거한 현대 중국 수계식에서의 여성들의 변화와 집념

리아추(지엔칭 스님) Ya Chu Lee (Jiancheng Shi) / 번역 설경스님

오늘날 여성의 수계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분울에 의거한 중국의 수계 절차는 여성이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적합한 모델로 간주된다. 삼단대계 수계식(triple ordination ceremony 三壇大戒)이라는 30 일 동안의 의식을 치르면서 여성 후보자는 구족계를 수지한 어엿한 수행자가 되는 마음 여행을 떠난다. 삼단대계 수계식은 승가에서 여성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 전체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정신적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19 년 중국 남동지역에 위치한 운문산(雲門山) 대각선사(大覺禪寺)에서의 구족계 수계식에서 수집한 민족지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이다. 중국 정부 정책에 350 명에게만 구족계를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여야 했다. 게다가 자원봉사자의 부족, 협소하고 복잡한 장소, 좋지 않은 기상조건 속에서 후보자들은 성공적으로 수계를 하기 위해 30 일 동안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은 수계식 전까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서로 협업하는 길을 찾았고, 상호간의 암묵적 이해가 있었으며,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였다. 본 논문은 수계식의 세부 내용, 구족계를 받기 위한 여성 지원자들 간의 자리 쟁탈전, 수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 여승들의 내면과 외면의 변화 등을 다룬다. 이들에게 있어 수계는 개인적으로 승려의 자격을 얻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서로 도움으로써 승단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발표자 약력

리아추(지엔칭: **Ya Chu Lee /Ven. Jian Cheng**) 스님은 최근에 랭카스터대학(University of Lancaster)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의 연구는 중국 선원의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알아차림) 수행에 중점을 두고있다. 스님은 2002 년에 출가 했다.